

雪橋 安錫傲의 산수와 문학

— 遊記와 관련 장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혜규*

<目次>

I. 서론	IV. 筆記와 유기의 분화
II. 詩와 유기의 조응: 抒情의 심화	: 일화의 확장과 정보의 체계화
III. 夢記와 유기의 형상화	V. 결론
: 眺望과 세계 인식	

<국문 초록>

이 연구는 雪橋 安錫傲의 山水遊記를 그의 전반적 작품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분석하고, 동시대 산수유기의 흐름과 연결시켜 이전에 조명되지 않았던 특징을 밝혔다. 雪橋의 유기는 詩, 夢記, 筆記와 서로 연관을 맺으며, 산수유람 체험을 총체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동시대 산수 문학이 유기와 함께 여타 장르를 종합하여 집대성되는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雪橋는 시와 유기를 긴밀히 조응시켜 시와 유기에 동일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유기의 서술을 축대로 사용하여 시에서 서정을 증폭시키고 심화하였다. 다음으로 雪橋는 몽기와 유기에서 산수의 형상화에 신이한 분위기를 더하고 현실인식과 삶에 대한 시선을 녹여내었다. 특히 雪橋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조선중화사상을 산수공간에 투영하여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친화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이념적 이상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雪橋는 필

기에서 산수유람 중 견문한 인물 일화를 확장하여 윤색하고 유기에서 필기의 영역에 속하는 산수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각 장르에 맞게 내용을 분화하였다. 18세기 산수 문학은 다양한 장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정이 심화되고 사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산수 관련 정보가 체계화되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雪橋의 산수문학은 그 흐름 중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다.

【주제어】 雪橋, 안석경, 유기, 몽기, 필기

I. 서론

18세기 문인 雪橋 安錫傲(1718~1774)은 평생에 걸쳐 전국의 산수를 유람했으며, 일곱 편의 산수유기를 남겼다.¹⁾ 20대에는 靑涼山과 天登山 등지를 유람했고, 40대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유람했다. 20대에 지은 유기는 단편인 데 비해, 40대에 지은 설악산 유기와 금강산 유기는 중장편에 속한다.

그의 산수유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금강산 유기에 나타난 품평 양상을 다룬 연구와, 산수묘사와 현실 인식이 접합된 면을 살핀 연구가 있다. 전자는 雪橋의 산수유람이 勝處를 추구한 점에 주목하여 금강산의 명승을 종합적으로 품평한 대목을 분석하였다.²⁾ 후자는 雪橋의 산수애호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불만에서 기인한 점에 착안하여, 그의 春秋義理와 朝鮮中華思想이 산수유기에서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였다.³⁾ 이들 선행 연구는 雪橋의 산수유기를 분석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1) 雪橋가 20대에 쓴 유기로 「遊天登山記」, 「遊靑涼山記」, 「遊龍頭山記」, 「遊靑涼山記」 등이 있고, 40대에 쓴 유기로 「雪岳記」, 「東行記」, 「東遊記」 등이 있다. 雪橋의 산수유기 목록은 부록 1 참조.

2) 윤지훈, 「雪橋 안석경의 금강산 유기」, 『한문학보』 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3)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제 VI장 산수에 대한 애호, 서울대대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 wyeyang@naver.com

의의가 있다. 즉 산수유기는 작가가 자연과 대면하여 이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심미안이 드러나며 사상이 자유롭게 표출되는데, 전자가 품평을 통해 삼교의 심미안을 연구했다면 후자는 산수묘사와 접합된 의론을 살핌으로써 그 사상적 면모를 밝힌 것이다.

이 두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삼교의 산수유기에 대해 더 이상의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교의 유기는 18세기 遊記史의 흐름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그만의 작가적 개성을 보이고 있어 유기사적 측면과 작가론의 측면에서 더욱 심도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삼교의 산수유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방법론을 달리 하여 삼교의 전반적 문학세계와 산수의 관련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간 축적된 유기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18세기 유기사와의 연결고리를 염두에 두고 삼교의 유기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삼교의 유기에 대한 연구를 넘어 조선 후기 산수문학의 심미적 가치와 특징을 조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교의 유기는 전형적인 유기의 장르 관습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문학 형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의 『東行記』 규장각 소장본에는 동일한 장소를 詩와 산문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夢記와 筆記 장르에서 산수유기와 관련된 대목이 자주 보인다. 이에 본고는 산수유기가 이들 장르와 연결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면을 18세기 산수문학의 특징인 산수 체험이 총체화되고 종합화되는 양상과 연결시켜 살피고자 한다.

II. 詩와 유기의 조응: 抒情의 심화

삼교는 산수를 유람하면서 수많은 시를 남겼다. 특히 이는 규장각 소장본 『東行記』(이후 규장각본 『동행기』로 칭함)에서 잘 드러난다. 규장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65-78.

각본 『동행기』에는 유기와 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⁴⁾ 이 『동행기』는 동양문고본 『雪橋集』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시가 빠진 유기 형태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 『동행기』에서 삼교는 일기의 형식으로 유기를 쓴 후, 유기 뒤에 “시가 있다[有詩]”는 말을 덧붙이고, 인상 깊었던 장소에 대해 시를 남겼다. 또한 규장각본 『동행기』에 수록된 시의 일부는 규장각본 『雪橋集』에도 수록되어 있다.⁵⁾

규장각본 『동행기』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산수유기와 산수시의 상호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동일한 광경을 유기와 시로 묘사한 대목이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두 면이 모두 바위절벽이었고, 꽃과 나무가 울창해 못에 둘러 비치고 있었다. 못은 맑고 깊었으며, 큰 물고기가 많았다. 빗속에서 올라가 둘러보며 곧장 일어날 수 없었다. 시가 있다.

보슬비 내리는 불왕촌에서	微雨佛王村
시냇가 언덕으로 지팡이 짚고 오르네.	支筇溪上丘
바위색은 감도는 못에 비치고	石色映廻潭
고기 노는데 붉고 푸른 꽃과 나무 어지러이 비치네.	紅綠亂魚遊
長風은 백발에 불고	長風吹華髮
흰 구름은 어찌 이리도 유유하게 흐르는가. ⁶⁾	白雲何悠悠

4) 청구기호 古 4792-2, 필사본 1冊(57張), 책 크기 22.3×14.5cm, 10行 20字. 이 자료는 학계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 본고에서 처음 소개한다. 英祖 37年(1761) 삼교가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고 지은 기행록으로 일기마다 시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5) 규장각본 『雪橋集』 卷2 pp.461-463의 금강산 유람시가 그것이다. 또 권2의 pp.465-466에도 금강산 유람시가 수록되어 있다. 삼교는 1761년과 1765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을 유람하여, 1차 유람에 『東行記』를 쓰고 2차 유람에 『東遊記』를 썼다. 앞에 수록된 금강산 유람시는 『동행기』의 시와 중복되므로 1761년 1차 금강산 유람에 창작된 것이고, 뒤에 수록된 금강산 유람시는 1765년 2차 유람에 『동유기』를 창작하며 함께 지은 시로 보인다. 『동유기』는 동양문고본 『삼교집』에만 전해지며 시가 없는 유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유기에는 언덕과 못의 전반적 구도가 서술되고, 시에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특히 시는 색채의 대비를 사용하여 선명하게 시각화하며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시와 산문이 대응되며, “비친다映”는 어휘가 중복되어 사용된다. 꽃과 나무, 돌과 물고기 등의 주요한 이미지가 반복되며, 특히 자연이 물가에 비친 영상이 아름답게 형용되고 있다. 유기를 통해 광경의 개요와 특징을 파악하고, 시에서 이미지를 부각하여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故事가 유기와 시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戊午年과 己未年 연간에 아버지[安重觀·인용자 주]께서 洪川 원님이셨는데 그 시절 자주 이 절에 놀러 가셨다. 그때 우리도 많이 아버지를 모시고 유람했는데, 지금 벌써 이십삼 년이 지났다. 서글픈 마음으로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여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또 밤에 처마의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원문은 淋浪·인용자 주]가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이켜 龍湫에 기우제를 지낼 적 일을 생각해보았다. 노승은 아버지께서 봄에 이 절을 유람하실 때 일을 많이 말했다. “매를 가진 자가 장끼를 산 채로 바쳐 꿩이 부엌으로 보내지려는데, 이때 원님께서 특별히 명을 내려 놓아주도록 해서, 꿩이 겨경 울면서 날아가 높이 수풀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이것이 절의 한 故事가 되어 저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비장한 나머지 시를 지었다. 시에 말하길,

옛적 부친을 모시고 놀러간 곳	在昔陪遊地
지금 이십 년이 지났네.	今來已卅霜
푸른 산은 모습을 변치 않는데	青山不改色
백발이 되어 눈물은 옷깃을 적시네.	白首倍沾裳
꿩을 놓아준 일은 고사로 징험할 만하고	縱雉徵遺事
용에게 비를 빌던 옛 글을 외우네.	求龍誦舊章
절집의 처마에 내리는 밤비는	禪檐中夜雨
무슨 일로 또 뚝뚝 떨어지는지.7)	何事又淋浪

6) 安錫徽, 규장각본 『東行記』, 辛未日 pp.1b-2a, “村口小丘, 兩面皆石磯, 花木蔚然, 環映回潭, 潭澄深多大魚. 雨中登眺, 不能遽起, 有詩.”

7) 安錫徽, 규장각본 『東行記』, 壬申日, pp.2b-3a, “歲戊午己未之際, 先大人率洪

인용문 중 유기에서 삼교는 수십 년 전 부친과 유람했던 곳을 다시 들러 옛일을 추억하고, 노승의 말을 빌려 고사를 전한다. 시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푸른 산과 자신의 백발을 대비시켜 세월의 무상함을 시각화하고 있다. 또 시와 유기 모두에서 사찰에서 들리는 밤비 소리를 “淋浪”이라는 동일한 형용사로 표현하여 해당 광경을 묘사하는 동시에 서글픈 심정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유기에 나온 내용을 시를 통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이미지화하여 환기하고 있다.

또 유기에서 짧게 서술된 심경을 시에서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다음을 보자.

戊寅日, 馬成嶺을 넘어 처음 금강산의 毘盧峰과 衆香城 모서리를 보니, 그 웅대하고 빼어난 기세가 천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벌써 사람을 오싹하게 했다. 잠시 杜峙에서 쉬다가 西廂谷 고개를 올라 九井과 望高臺 및 穴望峰과 內外水帖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피곤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다. 把金峙를 지나, 長安寺가 소나무와 전나무 사이에 은은하게 비치는 광경을 굽어보았다. 시가 있다.

아침에 마성령을 넘어 적 내 가슴이 활짝 열렸으니	朝踰馬嶺開吾胸
비로소 금강산 제일봉을 보았다오.	始觀金剛第一峯
바다 노을 다 걷히고 봄 하늘이 열렸고	海霞消盡春天闊
높은 봉우리 웅장하여 천만 겹으로 쌓였네.	高標雄拔千萬重
눈으로는 봤지만 다리도 함께 밟아야 할 텐데	須要足目兩俱到
어찌하면 長風을 얻어 비룡에 올라탈 수 있을까.8)	安得長風跨飛龍

川, 數遊此寺, 而不肖等多陪遊, 今已二十三年矣. 俯仰愴賞, 不能爲心, 而夜聞簾雨淋浪不能寐, 回憶祈雨龍湫時事. 而老僧多言先明府春遊是寺, ‘有鷹者生獻雉雉, 雉將入廚, 明府特令縱之, 雉喔喔飛去, 高窺林間, 此爲寺中一故事, 貧道至今記之.’ 愴賞之餘, 有詩. 詩云.”

8) 安錫徽, 규장각본 『東行記』, 戊寅日, p.6a, “戊寅, 踰馬成嶺, 始見金剛山毘盧衆香之偏, 雄秀之氣, 欲傾天下, 已令人竦然. 少憩杜峙, 登西廂谷峙, 見九井望高穴望內外水帖之偏, 疲困之餘, 不覺步履之輕舉, 過把金峙, 俯見長安寺, 隱映松檜間, 有詩.”

인용문은 삼교가 원주에서 출발하여 9일 만에 금강산을 대면한 순간을 담은 대목이다. 유기에서는 금강산을 대면하여 그 기세에 압도된 상황이 간략히 서술된다. 이에 비해, 시에서는 바다와 하늘이 열리고 천만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감격적으로 형용하고, 뒤이어 장풍을 얻어 비룡을 타는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기상 역시 금강산의 장관에 못지않음을 드러낸다. 즉 장관에 압도된 것에 더하여 그 장관에 도달하고픈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이를 통해 유기에 드러난 심경이 시의 이미지를 거쳐 보다 증폭되고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유람한 장소에 대한 감상을 기술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다음은 麻衣太子 유적지를 유기와 시로 형상화한 대목이다. 마의태자는 신라 敬順王의 아들로,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금강산에서 여생을 마쳤다.

펼짜기는 왼쪽 길을 따라 들어간다. 조금 가니 신라왕자의 옛터가 보였고, 조금 또 가니 돌로 된 성과 옛 성가퀴가 보였다.⁹⁾

소나무 사이 하나의 길이 길고, 꽃이 핀 가운데 석문이 열리네. 홀륭하다, 신라 왕자여. 세상을 버리고 여기 와서 지냈구나. 나라가 바뀌었으니 괴로이 절개를 완전히 지키고 운이 다 사라졌으니 높은 재주를 굽힐 수밖에 없었네. 무너진 성곽에는 오래된 담쟁이, 남은 터에는 길게 자란 이끼. 슬픔을 머금고 열반에 도달했으니 옛 자취를 어루만지며 높고 험한 봉우리 올려다보네. 고개를 돌려 소나무 언덕 아래를 보니 쓸렁한 재를 조문하는 이 아무도 없네. ¹⁰⁾	松間一逕長 花裏石門開 烈哉羅王子 捐世此徘徊 國移完苦節 運去屈高才 殘堞老薜荔 遺墟長莓苔 含悲到宴寂 撫跡仰崔嵬 回首松岳下 無人弔寒灰
--	--

9)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庚辰日, p.7a, “谷從左路入, 少前, 見新羅王子遺墟, 小前, 見石城故堞.”

인용문 중 유기 서술은 매우 간략하고 건조한 데 비해, 시에는 감정이 격정적으로 표출된다. 마의태자의 유적으로 들어가는 길을 묘사하는 시구는 점진적으로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다. 소나무 사이에 난 기다란 길을 걸어가다 꽃 사이에서 석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차후 중요한 장소가 등장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후 태자의 련을 탄식하는 대목에서 시인의 감정이 분출되고, 절개에 대한 칭송과 불우한 삶에 대한 연민이 이어진다. 높은 봉우리를 우러르는 장면에서 마의태자의 절개가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인적 없이 차가운 재만 날리는 장면에서 그의 불우함이 환기되면서 詩想이 마무리된다. 이처럼 情景가 혼용된 시는 유기 건조하고 간략한 서술과 대조를 이루며 유기에서 미처 표현되지 못한 분위기와 감상 지점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동행기』 속에서 삼교의 유기와 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수 작품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산수 유람의 체험을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수체험을 시와 유기로 함께 표현하여 연관시키는 일은 조금 이른 시기나 동시대 유기에서 종종 발견된다. 삼교보다 한 시대 이전 문인인 李景奭(1595~1671)의 『楓嶽錄』은 유기와 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고, 李夏坤(1677~1724)도 『東遊錄』 뒤에 시를 붙여두었다. 특히 동시대 문인인 洪百昌(1702~1742)은 금강산 산수문학 총서인 『東遊記實』에서 기행시집인 「旬日記」를 기행록인 「文日記」와 묶어, 둘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가령 「문일기」에 나온 사건과 승경은 「구일기」에서 다른 장르로 재등장하여, 독자는 이를 통해 이미 臥遊한 승경을 반복하여 감상하고 작가의 감흥을 체득할 수 있다.¹¹⁾

요컨대, 삼교가 시와 유기를 동시에 기술하여 배열하는 방식은 산수 체험을 여러 층위에서 표현한 것으로, 독자는 이를 통해 臥遊와 서정에

10)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p.8b.

11)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106-108. 참조.

대한 공감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법은 17~18세기 일군의 조선 문인들이 산수체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를 종합화한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삼교의 유기는 시와 긴밀히 조응되어 동일한 이미지와 표현이 사용되고 유기의 서술이 촉매가 되어 시에서 이미지가 증폭되고 있다.

Ⅲ. 夢記와 유기의 형상화: 眺望과 세계 인식

다음으로 삼교의 산수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 장르는 꿈을 기록한 夢記이다. 삼교는 꿈에 대한 여러 편의 시와 산문을 남겼다.¹²⁾ 특히 그는 꿈을 통해 내적 갈등과 현실 인식을 드러냈는데, 다수의 작품에서 산수유람에 대한 애호를 드러내고 있다. 꿈에서 그는 벗과 설악산 유람을 하기도 하고 隱者인 商山老人과 은자의 공간을 상징하는 天台山을 유람 하기도 한다.¹³⁾ 산수유기에도 꿈에서 유람한 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몽기 중 꿈속에서 유람한 산을 형상화한 대목으로, 그가 24세 때 쓴 「一山記」이다.

꿈에 어떤 산에서 만 가지 형상을 둘러보니 큰 강이 옆으로 흘러 산을 비추고 지나는데, 산은 우뚝 솟았다. 돌과 나무를 잡고 곧장 수천 길(丈)을 올라 비로소 산꼭대기에 섰다. 산을 올라 바라보는 즐거움이 처음 나아가던 수고를 보상할 만했다. 산의 동북쪽은 아득하여 무슨 형상인지 살펴볼 수 없었고, 서쪽에 당해서는 겹겹이 여러 봉우리가 보이는데 안개와 눈에 가려지고 어튼거렸으며, 남쪽은 아득히 열려 수천 리의 땅이 있고 홀로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잠시 뒤에 어지럽게 자란 꽃과 버들이 강 가까이에서 빛을 발하고 하늘에는 구름에

12) 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제34집, 근역한문학회, 2012. 참조.

13) 安錫傲, 규장각본 『雪橋集』(『韓國文集叢刊』 233) 卷1, 「夢與順之爲雪嶽之遊」, p.436.; 「夢見李世民與竇建德戰. 却在燈前, 有商山二老人, 余請與同遊天台山, 遂起仍覺」, p.437.

노을이 비치며 새가 날아다녔다. 내가 막 소리 지르며 기이하다고 칭찬하는데, 마침내 잠에서 깨어 꿈인 줄 알았다.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일에 진실로 좋아하는 것이 없지만 산수를 좋아하는데 아파서 돌아다니지 못하니, 그리움이 있어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낮이 왕래함이 있는 것일까? 알 수가 없다. 다만 마음속이 탁 트이는 걸 깨달아, 아직도 즐거움이 남아 있다. 산수의 일이 하나하나 눈에 생생하여 차마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중이를 취해 기록한다. 辛酉年 1월이다.¹⁴⁾

인용문에서 삼교는 꿈속에서 산의 사방을 조망하고, 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꿈속에서의 유람과 실제 유람을 연결시키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몽기와 유기의 산수 형상화 방식이 흡사하다는 점이다. 먼저 꿈속의 유람과 실제 유람을 연결시키려는 인식은 꿈속에서 본 장소에 낮이 다녀온 것이 아닌지 묻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반대로 산수유기에서 실제 경치를 보고, 전에 꾸었던 꿈속의 경치와 동일함을 깨닫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다음은 『東行記』의 한 대목이다.

癸未日, 비와 눈이 내려서 摩訶衍에 머물렀다. 구름과 비, 바람과 눈을 보니 순식간에 옥 같은 봉우리와 골짜기, 붉은 꽃과 푸른 잎 사이에서 모양을 바꾼다. 막 동틀 무렵 말끔히 개어서 달빛을 비껴 새하얗다. 일어나 중향성의 한 면을 보니 신이한 빛깔이 매우 기이하다. 작년에 한 절에서 꿈을 꾸었다. 북쪽 처마 밑에서 비로봉 정상을 우러러 보는데 눈의 빛이 새하얗게 오래도록 감탄했었다. 작년 가을 금강산 유람을 가려 했을 때 이 꿈을 생각했지만 눈 때문에 결국

14)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 卷1(아세아문화사), 「一山記」, p.27, “夢取一山, 眺臨萬象, 有大江橫來映山而過, 山則屹然. 蓋捫石緣木, 直上數千仞, 而始立乎山頂. 登望之樂, 可以償始進之勞矣. 山之東北, 蓋漠然未省爲何狀, 而當其西, 疊見數峯, 而烟雪掩映, 南開茫茫, 有地千里而獨見天高. 俄而雜生花柳, 逼江而發色, 而有雲霞有飛鳥. 余方叫而稱奇, 而遂覺乃夢也. 念余於世事, 實无所喜, 喜山水. 顧病未能遊眺, 是夢也, 豈以思想而有是耶, 抑果有物往來耶? 余未能知也. 但覺肝肺超豁, 尚有餘賞. 山水之事, 一一生目, 有未忍遺廢者, 故取紙墨記之, 時辛酉一月也.”

가지 못했다. 이번 유람은 초여름이라 마땅히 눈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꿈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오늘 아침 비로봉을 오르려는데, 눈이 봉우리 가득한 것이 이와 같다. 아. 기이하구나.¹⁵⁾

마하연에서 금강산 비로봉 정상을 보며, 삼교는 작년에 꾸 꿈속 기억해낸다. 꿈에서 비로봉 정상이 눈으로 덮인 것을 보고 감탄했는데, 실제 유람에서 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여름의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雪景이 등장하며, 꿈이 적중하지 않을 것이라던 작가의 예상이 깨지게 된다. 이 장면은 삼교의 금강산 유람이 이미 꿈속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신이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한 신이한 분위기는 금강산의 기이한 경치와 어울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즉 꿈과 실재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인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현실 속 유람을 보다 특별한 체험으로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몽기와 유기의 형상화 방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일산기』에는 산 정상에서 사방의 경치를 형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상에서 사방의 경관을 차례로 묘사하는 방식은 여타 삼교의 유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음은 『동행기』 중 금강산 비로봉 정상에 올라 사방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탁 트여서 다시 높은 산과 언덕이 눈을 가리지 않고 三韓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며, 다섯 산악과 네 못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날아오르고 뜻을 어루만진다. 이에 이전의 성대한 왕들과 참된 유학자와 큰 덕업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한탄하였다. 동남쪽으로는 여러 섬이 물 위의 거품처럼 떠 있어 국토를 또한 자욱한 구름에 의거해 손으로 가리킬 수 있다. 북쪽으로는 백두산이 있는데 崑崙山으로부터 나왔다. 그 기세가 웅장하고 두터우며

15)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癸未日, p.13b, “癸未, 雨仍雪, 故留摩訶衍. 見雲雨風雪, 倏忽變態於瓊岑瑤壑, 丹葩綠葉之間, 將曉快霽, 斜月皎然, 起看香城一面, 神彩頓異. 昔年夢於一寺, 北檐下仰見毘盧頂上, 雪色皓然, 喟然者良久. 往秋欲爲楓山之遊, 而念是夢, 恐阻雪不果. 今來正當孟夏之中, 謂宜無雪, 而夢不必驗. 是朝將登毘盧, 而雪滿峯頭如此. 吁! 可異也.”

장대하고 精美하여, 빼어남이 靑丘에 모아져 천개의 가지와 만개의 잎이 줄기를 따라 멀리 퍼지니, 아, 장대하도다!

다만 괴이하게도 그 거친 싹과 짧은 잎이 동북쪽 바다에 서리고 굽혀, 이에 백 년 동안 오랑캐 임금인 우리 大明 천하를 점거하였다. 그런데 정수가 모인 곳에서 한번 오랑캐를 쫓아내고 명나라를 회복하는 의리를 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무릇 물건은 정교한 것은 더디고 거친 것은 빠르며 긴 것은 느리고 짧은 것은 급하니, 어찌 땅의 일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또한 기다릴 만한 바가 있을 수 있다.¹⁶⁾

『동행기』에서 인용한 위의 대목과 앞서 살펴본 「일산기」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사방의 조망에 대한 서술에 삼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산기」에는 동북쪽은 잘 보이지 않고 서쪽은 눈으로 덮여 있다고 하였다. 동북과 서쪽에 대한 모호한 전망은 단지 조망을 뜻하는 것을 넘어, 당시 조선과 중국의 정국에 대한 그의 암담한 심경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산기」에 다소 은미하게 보이는 인식이 『동행기』의 형상화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서쪽의 조망에 대해 삼한을 넘어 중국의 五嶽四瀆[다섯 개의 산과 네 개의 大川]과 성현을 일컫는 장면과, 비로봉의 서쪽 경관을 보며 오래 한탄했다는 대목에서 당시 조선과 중국의 현실에 대해 지녔던 삼교의 비통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어 북쪽의 백두산을 중국의 성스러운 산인 곤륜산과 연결시켜, 이를 통해 중국 문물의 정수가 산맥을 통해 조선으로 퍼지는 과정을 기세 좋게 그리고 있다. 이어 조선에 중화의 문명과 문화가 집성되었음에도 명 왕조를 멸망시킨 淸 왕조를 처단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대

16)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甲申日, pp.14b-15a, “西望豁然, 更無高山峻阜之礙眼, 三韓可得目悉, 五嶽四瀆之間, 不覺神馳而意撫, 仍思前古盛王眞儒大德業, 爲之愾然者, 良久. 東南諸夷浮瀛, 國土亦足憑瘴雲而指點. 北有白頭之山, 自崑崙而來. 氣雄勢厚, 張大專精. 鍾秀全入靑丘者, 千枝萬葉, 隨幹而遠布. 吁! 其壯矣! 獨怪其羸芽短蘗, 屈蟠於東北海區者, 乃出百年, 胡帝據我大明之天下. 其精秀之所注, 顧無一伸攘除匡復之義者, 何哉? 凡物精遲而羸速, 長緩而短急, 豈非地事亦然, 而容有可待者歟.”

목에서, 그의 조선중화사상과 춘추의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삼교는 老論 峻論系 문인으로, 전 생애에 걸쳐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도운 明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對明義理論과 청을 정벌해야 한다는 北伐論, 그리고 조선이 천하에서 유일하게 중화의 맥을 잇고 있다는 조선중화사상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청과 교린관계를 맺은 지 백여 년이 지났고 청의 세력은 강성하여, 명과 청에 대한 삼교의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로 갈등을 빚었다.¹⁷⁾ 그럼에도 「동행기」와 「일산기」의 말미에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일산기」에는 남쪽의 조망에서 홀로 높은 하늘을 보아 마음이 특 트였다고 하였고, 「동행기」에서는 사물의 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수가 모인 금강산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즉 무너진 천하질서를 조선에서 회복하고 동아시아 문명의 맥을 이어가리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삼교처럼 산수를 꿈과 연결시킨 동시대 문인으로 權燮(1671~1759)이 있다. 권섭은 몽기에서 꿈에서 본 산수의 정경을 묘사하여 상상적인 공간에서 淸福을 누리고자 했고,¹⁸⁾ 현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산수 탐승의 욕구를 꿈속의 유람으로 해소하였다.¹⁹⁾ 이는 삼교의 현실 인식이나 산수 인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꿈과 산수를 연결시켜 산수 묘사에 신이한 정서를 더하고, 현실 인식을 우회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또 당시 노론 문인인 李胤永(1714~1759)은 중국 산수기선집인 『名山勝槩記』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선집하여, 五嶽이 있는 각 지역마다 역사적·사상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배치함으로써, 무너진 질서가 회복된 가상의 천하를 창출하였다.²⁰⁾ 이는 산수를 천

17) 강혜규, 앞의 논문, 2012, p.126. 참조.

18)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權燮(1671-1759) 夢記와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19) 황경일, 「玉所 權燮의 山水 散文 研究: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4. 참조.

20) 정우봉,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회연구』

하질서가 확립되는 이상공간이자, 조선중화사상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사고했다는 점에서 삼교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 조선 문인들은 산수를 도를 수양하는 공간으로 여기기도 했고, 현실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에 비해 삼교를 포함한 18세기 일군의 문인들은 산수를 천하의 질서가 정립되는 이상공간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당시의 조선중화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IV. 筆記와 유기의 분화: 일화의 확장과 정보의 체계화

삼교는 필기집 『雪橋漫錄』을 남겼으며, 동양문고본 『삼교집』에도 필기에 속하는 글이 섞여 있다. 그의 필기에는 정치·역사·인물·문학·사상 등 다방면의 화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이중 산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유기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교의 필기 중 산수와 관련된 글은 주로 인물 일화에 국한된다. 다음은 산수에 대한 필기 중 三淵 金昌翁(1653~1722)의 산수유람 일화를 서술한 부분이다.

삼연선생이 산을 유람할 때 진실로 명산을 찾아다니셨다. 그런데 봄과 가을의 좋은 시절엔 여러 산을 자유롭게 노닐며, 꼭 명성이 있는 산만 취하지는 않고 거리와 일정을 정하지 않으며 여유롭게 다니셨다. 또 유람 중 도로와 산수 및 人家에 있다가 잠시 쉴 때는 반드시 三經을 외우고, 선생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선비들에게도 반드시 책을 외우기를 권하셨다.²¹⁾

49, 한국한문학회, 2012, p.122.; 강혜규, 「조선 문인들의 明清 산수유기 향유양상: 『名山勝槩記』 독서 양상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한국한문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한문학회, 2015, p.41. 참조.

21) 安錫徽, 동양문고본 『雪橋漫錄』, 『雪橋集』 下(아세아문화사), 「三淵遊山」, p.142, “三淵先生之遊山也, 固以名山爲事, 而春秋佳時, 散行諸山, 不必取名者, 無遠近, 無程限, 悠悠漫漫而遊. 在道徑, 在山水, 在人家, 少憩則必誦三經, 所從人士, 必勸之誦書.” (원본 『雪橋漫錄』에는 조목마다 소제목이 없으나,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목차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 편의를 위해 이를 따랐다.)

삼연이 소싯적에 산수를 유람하다 오래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부인이 출산에 임해서 매우 통증이 심해 까무러쳤다. 羅氏 夫人[삼연의 모친-인용자 주]께서 놀란 와중에 약으로 구하니 겨우 소생하여 분만할 수 있었다. 그 후 삼연이 돌아와 인사드리자, 나찌 부인이 그를 심하게 질책했다.

“부부가 이미 함께 잉태하였으니, 출산할 때는 의리상 마땅히 함께 거하며 구호해야 한다. 너는 妻가 출산에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멀리 유람하여 돌아오지 않아 나로 하여금 수일동안 놀라고 근심하게 했으니 이는 불효이고 불의이다.”

삼연이 이후로 부인의 출산기일이 임박하면 반드시 집에 있으면서 멀리 유람하지 않았다.²²⁾

두 일화에서 삼연의 유람 습관과 산수애호 양상을 볼 수 있다. 삼연은 삼교에게 산수 유람의 본보기가 된 인물로, 삼교는 삼연의 유람을 상사하며 그와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거나,²³⁾ 삼연처럼 산수를 많이 유람할 수 있다면 이를 세속의 권력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²⁴⁾ 삼연의 일화 외에도 삼교의 필기에는 유람 중 만난 승려나 산골 백성의 일화가 등장한다. 다음은 호랑이를 잡은 백성 安道一에 대한 기록이다.

22)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漫錄』, 『雪橋集』 下(아세아문화사), 「三淵遊山」, p.143. “三淵少時遊山, 久而未反, 夫人當產悶絕, 羅夫人驚惶救藥, 僅得回蘇而仍免. 其後, 三淵之反面也, 羅夫人切責之曰: “夫婦既同孕, 其免也, 義當同居而救護. 爾乃知妻之臨產, 而遠遊不回, 使我累日驚憂, 不孝也, 不義也.” 三淵自此以後, 臨產期, 必在家, 不遠遊.”

23)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 上, 「遊清平山記」, pp.6-7, “時聞老僧言, 言及淵翁, 瀏瀏不能已, 竹笠葛袍一節, 灑然其風標可想也. … 悲夫! 余晚於淵翁, 淵翁晚於梅月翁, 梅月翁晚於息翁, 漠然不同時, 不得於慶雲峰上逢迎偕言笑, 可恨.” p.6-7, “時聞老僧言, 言及淵翁, 瀏瀏不能已, 竹笠葛袍一節, 灑然其風標可想也. … 悲夫! 余晚於淵翁, 淵翁晚於梅月翁, 梅月翁晚於息翁, 漠然不同時, 不得於慶雲峰上逢迎偕言笑, 可恨.”

24)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 上, 「夢百淵先生記」, pp.173-174, “使我得學先生, 得如先生之六入楓岳, 而十年雪岳者, 則雖以十年雪鏗之權六入黃閣之貴, 要我而易之, 吾不聽也.”

안도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담력과 용기가 있었다. 일가가 楡谷에 살았는데, 골짜기에 호랑이와 표범이 많아서 사람들이 마을 문을 나설 때 반드시 철퇴나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다녔다. 하루는 밤에 눈이 내렸는데, 동틀 무렵 도일이 홀로 나와 물을 길어오려 하다가 오솔길에서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났다. 호랑이는 그를 노려보며 발톱을 펴고 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도일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크게 소리 지르며 갑자기 달려들었다. 호랑이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그 중 큰 놈은 도망치니, 도일은 남은 호랑이를 몽둥이로 쳤다. 게다가 한 마리가 또 날듯이 도망가니 도일은 다시 쫓았다. 또 쫓고 다시 때리며 산과 계곡을 십여 리 뛰어다녔다.

호랑이는 홀연 몸을 웅크리더니, 갑자기 솟구쳐 수 길을 뛰어넘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좁아서 따라 들어갈 수 없으니 바야흐로 머뭇거리며 망설였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 비로소 뒤를 밟아 왔다. 와서 계획을 세워 여섯 아이에게 호랑이를 정탐하여 굴로 들어가게 했다. 오래 있다가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다리를 잡았는데 끌어도 나오지 않으니 어떡하죠?”

“놓아두고 빨리 나오너라.”

“몸을 돌릴 수 없으니 어떡해요?”

“기어서 나오려무나.”

아이가 이에 틈으로 나와서 말했다.

“들어가서 백 걸음 채 가지 못해 호랑이 발이 보이는데, 더듬어보면 매우 부드러워요. 아마도 이미 죽은 것 같아요.”

또 계책을 세워 철로 된 큰 못으로 쪼아서 굴의 좌우를 부수었다. 이윽고 도일이 홀로 들어가 거꾸로 호랑이를 끌고 나왔다. 길이는 한 길이 넘었고 무늬가 얼룩덜룩하여 어루만질 만했다. 마침내 가죽을 벗겨 현령에게 바쳤다.²⁵⁾

25)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 上, p.26. “有安道一者, 有膽勇. 族居楡谷, 谷多虎豹, 凡人出門, 必有鐵椎木椎. 一日有雪深. 比明, 道一獨出除汲, 徑值三虎. 虎則睥睨, 而開爪微動尾. 道一奮椎大呼而突然迫之. 虎皆蒼茫. 其大虎跳去. 乃椎殺餘虎. 而一虎又翻走. 道一又逐之, 且逐而且擊, 騰山礪將十餘里. 虎則忽蹶而忽起數回, 超入石穴. 穴幽窄不可以從之, 方躊躇. 里人竭作, 始踵來, 來而計之, 令六歲童子, 偵虎而入穴, 久而有聲曰: ‘得毛足, 曳而不出, 奈何?’ 曰: ‘舍而亟出.’ 曰: ‘旋身不得, 奈何?’ 曰: ‘蟹螯行.’ 童子乃卻行而出曰: ‘入不百步, 而虎足見, 探之柔甚, 殆已死矣.’ 又計之, 以大鐵釘剝, 墜穴左右, 已道一獨入, 倒曳虎出之. 長丈餘, 文斑斑可捫. 遂皮之, 入于縣尉.”

위 글에는 산골 백성이 호랑이를 잡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실감 나게 묘사되어 있으며, 童子和 안도일의 대화가 길게 붙어 있어 삼교가 견문을 토대로 윤색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삼교는 야담을 여러 편 창작했으며, 그의 대표작인 「劍女」는 여성 검객에 대한 견문을 윤색하고 확장시킨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²⁶⁾ 위 일화는 비교적 짧은 작품이나, 안도일이 호랑이와 대면한 순간의 팽팽한 긴장과 여섯 살 어린아이의 천진함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삼교의 유기에도 인물 일화는 드물게 등장하는데, 가령 丁丑年 胡亂에 오랑캐를 꾸짖다가 목숨을 잃은 張氏 처녀의 사적이 짧게 서술된다.²⁷⁾ 삼교의 유기에서 일화는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는데, 아마도 이는 긴 일화가 여정을 서술하는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비해 필기의 영역에 속하는 지식 정보는 삼교의 유기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산수 지형에 대한 정보가 서술된 대목이다.

이 산은 그 줄기인데, 法排嶺으로부터 일어나 남쪽으로 간 것을 비로소 금강이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서쪽으로 뻗어 淮陽의 여러 산이 되고, 동쪽으로 뻗어 歙谷·通川의 여러 산이 되며, 叢石亭과 金欄窟은 가장 기이하다. 鎖郎嶺으로부터 나와 낮아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기이한 봉우리와 절벽이 많다. 이어 동쪽으로 뻗어 通川이 된 것이 더욱 뛰어나다. 또 錦繡, 天馬, 白蓮, 百井 등 여러 봉우리들이 가장 유명하다. 百井峯의 정상에 돌이 움푹 파여 못이 된 것이 거의 백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서쪽 회양으로 뻗은 것은 일컬어짐이 없으니 어찌 이리도 모호한가.²⁸⁾

26)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劍女」 연구-女俠敘事 傳統의 繼承과 變容」, 『韓國漢文學研究』 41, 한국한문학회, 2008. 참조.

27)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中, 「東遊記」, p.5, “踰岐城時, 見烈女張氏旌門, 張氏學生應斗之女也. 以處子從母避丁丑虜寇, 路岐城, 見虜掠, 怒罵臊羯狗, 終不見汚辱, 而受亂刃以死. 其後道伯聞, 卽其地旌門, 其墓在其傍數里之近云.”

28)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甲申日, p.15a, “卽此山乃其幹也, 而自法排嶺起而南者, 始以金剛名, 而西抽爲淮陽諸山, 東抽爲歙谷通川諸山, 而叢石亭金欄

위 글은 금강산의 지형에 대한 서술 중 일부로 지명과 산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맥과 못 등에 대한 지리 정보와 사찰과 누대 등의 인문 정보가 서술된다. 18세기 산수유기에는 산수 관련 정보가 정리되며 인문지리 지식이 체계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²⁹⁾ 삼교의 유기 역시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교의 유기에서 지형에 대한 서술은 비교적 긴 분량으로 기술되며, 특히 萬物相이나 비로봉과 같은 명승지에 도착했을 때 관련 장소에 대한 정보가 종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산수 관련 정보는 산수의 지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유람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금강산을 유람할 때는 두루 찾고 끝까지 탐험할 필요는 없다. 오직 일 년 내지 이 년 머물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서 여유롭게 유람하여 실컷 보아 마음이 화락하고 정신이 퍼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³⁰⁾

금강은 진실로 기이한 완상할 곳이다. 그러나 반드시 天時에 적합한 뒤에야 가능하다. 또 스스로 몸을 돌아보아 재물에 묶이거나 세상에 갇을 것이 없는 후에 비로소 참 흥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³¹⁾

위 인용문은 「동유기」의 일기체 서술이 끝난 후 조목별로 정리된 대목 중 일부이다. 첫 번째 조목은 금강산의 유람에 대해 조급한 욕심을 버리고 여유를 찾으라는 지침이다. 이러한 유람 지침은 당시 여타 유기

窟最奇, 自鎖郎嶺低而復起者, 方多奇峯異壑, 而東抽於通川者尤勝. 而錦繡天馬白蓮百井等峯最有名. 百井峯頂石窪爲井者, 將過百數云. 西抽於淮陽者, 無稱, 豈其晦耶.”

29) 강혜규 앞의 논문, 2014, pp.229-236. 참조.

30)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中, 「東遊記」, p.49, “金剛之遊, 不必偏索而窮搜, 惟當一兩年留連, 欲行而行, 欲止則止, 優游厭飫, 以心融神暢爲期.”

31)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中, 「東遊記」, p.49, “金剛固奇賞, 然必適天時而乃可, 且顧自身, 無物累世償而後, 方得真趣.”

에 다수 등장하며,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홍백창의 『동유기실』에는 「雜著」라는 제목으로 산수와 관련된 필기 항목이 독립되어 필기에 속한 글이 18편 실려 있다. 그 중 「遊山譜」라는 글은 유람에 임하는 다섯 가지 규칙을 서술한 것인데, 세 번째 규칙이 삼교의 지침과 매우 흡사하다. 유람 시일과 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오직 경치를 완상하고 흥을 붙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심신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무한한 흥취를 얻을 것이라는 조목이다.³²⁾ 위 인용문 중 두 번째 조목인 유람에 필요한 날씨 및 경제적 여유에 대한 서술 역시 『동유기실』의 「잡저」 중 「春秋景辨解」과 「유산보」 등의 글에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술했듯 삼교는 삼연을 존경했으나, 지형 정보의 오류를 바로 잡고 유람 정보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삼연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설악산은 진실로 기이하고 웅장하다. 그러나 금강산과 비교하면 높이는 오분의 일 정도 낮고 크기는 삼분의 일 정도 작고, 빼어난 모양은 사분의 일 정도 적으니, 또한 장남과 차남의 차이가 될 따름이다. 그런데 삼연이 이를 難兄難弟라고 하셨으니, 어제서일까? 생각건대, 삼연은 설악산을 위주로 하셔서 사사롭게 여김을 면치 못한 것 같다.³³⁾

금강산은 천하에서 제일이 된다. 그리고 돌로는 萬物初가 더욱 기이하고 물로는 구룡폭포가 가장 웅장하고,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는 비로봉이 심히 좋다. 아마도 세 가지 뛰어난이라 칭하는 바다. 이 끝짜기는 楊士彦에게서 처음 드러났으니 소위 「千佛洞記」라는 작품이 이것이다. 이어 이백 년 동안 가

32) 洪百昌, 日本 靜嘉堂文庫 소장본 『東遊記實』 卷3, p.16b, “必也, 勿限時日, 勿計遠近, 或十步而止, 或數里而宿, 惟以賞心寓興爲悅, 毋使意促身疲, 然後乃有無限真趣.”

33) 安錫傲, 동양문고본 『雪橋集』 上, 「東行記」, pp.454-455, “雪嶽固奇壯, 而視楓岳, 高低五之一, 大小三之一, 秀色小四之一, 則亦伯仲之等耳. 顧淵翁以爲難兄難弟, 何哉? 意者, 淵翁主乎雪岳, 不免於私之.”

려져 있었다. 비록 삼연 김선생이 여섯 번 금강산에 들어가 깊이 찾았으나 끝내 보지 못하였다.³⁴⁾

첫 번째 글에서 삼교는 설악산이 금강산보다 부족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한 후, 이 둘을 비슷한 수준이라 칭한 삼연의 주장을 사사로운 것이라 비판한다. 두 번째 글은 삼교가 금강산 祕境인 千佛洞을 구경한 후 삼연이 가보지 못한 장소를 밟았음을 자부하는 대목이다. 비록 삼연이 수적으로는 여러 번 금강산을 구경했는지라도, 질적으로 자신의 유람만큼 비경을 탐승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금강산에 대한 안목이 삼연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선대 문인이 가지 못한 곳을 탐방하고 선대 문인의 유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목은 당시 유기에 종종 나타난다. 가령 홍백창은 金昌協(1651~1708)의 「東遊記」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고, 삼연이 가지 못했던 지역을 밟았다며 시를 남기는 등 선대 문인의 유람을 뛰어넘은 점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³⁵⁾ 이러한 성향은 단지 선대 문인의 유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유람과 산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처럼 삼교의 유기는 18세기 산수문학에서 산수와 유람에 대한 정보가 집적되고 정리되는 흐름상에 위치하며, 특히 유람 중 견문한 인물일화가 필기에서 보다 확장되고, 필기의 영역에 보다 가까운 산수 관련 정보는 유기에서 보다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삼교의 필기와 유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장르의 속성에 맞추어 각각 풍부해지고 다양화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34) 安錫傲, 규장각본 『東行記』, 辛卯日, p.35b, “蓋金剛既甲於天下, 而以石則萬物初爲又奇, 以水則九龍瀑爲最雄, 以高登遠望, 則毘盧峰爲甚壯, 倘亦所稱三傑者耶. 是谷自楊萬里而始露, 所謂千佛洞記者, 是也. 旋又閱二百年, 雖以三淵金先生六入金剛, 窮搜極覓, 而終不見.” (원문 중 楊萬리는 楊士彦(1517~1584)을 가리키며, ‘萬里’는 그 별호이다.)

35) 강혜규, 앞의 논문, 2014, pp.73-79. 참조.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본 삼교의 산수유기가 시·몽기·필기 등의 장르와 관련되는 양상은 18세기 산수문학의 흐름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18세기 산수문학에서는 산수유람의 체험이 총체화되며, 유기와 함께 시와 일기, 필기 등의 장르가 종합화되어 하나의 산수문학총집을 이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령 전술한 홍백장의 『동유기실』은 기행록인 「문일기」, 유람 중 견문한 고사와 일화, 여행 정보로 구성된 「잡저」, 유람 과정에 쓴 시 「구일기」의 세 층위로 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삼교의 전반적 문학세계에서 여러 장르가 산수와 관련되어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거나 서정성을 강화하는 면모는 삼교 산수유기의 특징이자, 18세기 산수문학의 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삼교의 산수유기를 그의 전반적 작품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다루는 한편, 동시대 산수유기의 흐름과 연결시켜 이전에 조명되지 않았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삼교의 유기가 시·몽기·필기 등과 서로 연관을 맺으며, 산수유람 체험을 총체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동시대 산수 문학이 유기와 함께 여타 장르를 종합하여 집대성되는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삼교는 시와 유기를 긴밀히 조응시켜 시와 유기에 동일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유기의 서술을 축대로 사용하여 시에서 서정을 증폭시키고 심화하였다. 다음으로 삼교는 몽기와 유기의 형상화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산수의 형상화에 신이한 분위기를 더하고 현실 인식과 삶에 대한 시선을 녹여내었다. 특히 삼교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조선중화사상을 산수공간에 투영하여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천하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이념적 이상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삼교는 필기에서 산수유람 중 견문한 인물 일화를 확장하여 윤색하고 유기에서

는 필기의 영역에 속하는 산수 관련 정보를 심화하여 각 장르에 맞게 내용을 분화하였다. 18세기 산수 문학은 다양한 장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정이 심화되고 사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산수 관련 정보가 체계화되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삼교의 산수문학은 그 흐름 중에서도 빼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다.

<參考 文獻>

安錫傲, 『東行記』 규장각 소장본.
 ——, 『雪橋漫錄』 동양문고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6.
 ——, 『雪橋集』 동양문고 소장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6.
 ——, 『雪橋集』 규장각 소장본, 한국문집총간본, 1999.
 ——, 『雪橋集』 家藏本, 토우출판사 영인본, 2002.
 洪百昌, 『東遊記實』, 日本 靜嘉堂文庫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강혜규,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2006.
 ——, 『雪橋 安錫傲의 「劍女」 研究-女俠敘事 傳統의 繼承과 變容』, 『韓國 漢文學研究』 41, 한국한문학회, 2008.
 ——, 「삼교 안석경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제34집, 근역한문학회, 2012.
 ——,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선 문인들의 明清 산수유기 향유 양상: 『名山勝槩記』 독서 양상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한국한문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한문학회, 2015.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 權燮(1671-1759) 夢記와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금강산 후기」, 『한문학보』 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정우봉,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황경일, 「玉所 權燮의 山水 散文 研究: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부록1. 삼교 안석경의 산수유기 목록

제목	창작년도 (작가의 나이)	계절 및 동행자
「遊天登山記」	1739년 이전	가을
「遊清平山記」	1739년, (22세)	여름 天中節(단오)
「遊龍頭山記」	1743년, (26세)	봄 음력 3월 하순, 朴仲明, 노승 약간 명과 동행
「遊清涼山記」	1743년, (26세)	봄 음력 4월 10일~11일
「雪岳記」	1760년, (43세)	봄 음력 4월20일 기록, 7일간 유람
「東行記」	1761년, (44세)	여름 42일간 유람
「東遊記」	1765년, (48세)	가을 음력 8월18일~9월 30일 42일간 유람, 閔百順, 申子翬과 동행

Abstract

*Sabkyo An Suk Kyeong's Landscape Essays / Kang Hye Kyu**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landscape essays written by Sabkyo An Suk Kyeong in relation to his works. This study also aims on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his landscape essays which have not yet been recognized,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scape essays of the era. Closely related with poetry, dream records[夢記], and pilgi(筆記), Sabkyo's travel essays embody his travel experience as a whole. This can be understood in the trend of landscape literature of the era, which, along with travelogues, incorporated various genres.

First of all, Sabkyo closely connected poetry with travel writing. He used identical expressions in both poems and travelogues and used the narrative of the travelogue as a catalyst to amplify and deepen the lyricism in his poems. Next, Sabkyo used the same method for creating imagery in dream records and travel writing, and thus, added the mystical ambience to the imagery of the landscape, along with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 views on life. Sabkyo further instilled his core idea, Sinocentrism, in the landscape, which shows his pride in Joseon and his ideal on reestablishing the universal order. Finally, by expanding and embellishing his anecdotes of the people he met during his travels in his pilgi writings and by deepening the scope of information on the landscape and travels in his travelogues, which originally are topics for pilgi, Sabkyo differentiated the content of his writing by each genre. This characteristic is more prominent in Sabkyo's travelogues among the travelogue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eighteenth century brought rise

to a depth in lyricism, detailed imagery, and a systemization of the information on landscape in landscape literature, all of which led to the proliferation and variation of each genre. Sabkyo's literary works are the most prominent among the flow of such works.

【Key words】 An Suk Kyeong, Sabkyo, landscape essay, travelogue, dream record

* Lecturer, University of Seoul / wyeayang@naver.com